

자기계발서 전성시대와 힐링 인문학

송현*, 안관수**
원광대학교 강사*,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The golden age of self-development books and healing humanities

Song Hyeon*, Kwan-Su An**
Lecturer, Dep.,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요 약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가면서 한국의 도서시장은 소위 자기계발서로 화끈 달아올랐다. 신자유주의 사회체제에서 자기계발서의 환상은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개인의 경쟁력 향상과 맞물려 필연적으로 자본이 추구하는 상품화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경쟁사회에서의 낙오를 순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무엇인가 근본적 요소가 결여된 존재로 인정하게 만드는 자기계발서의 특징들은 이처럼 선택을 강요당하는 개인들에게 끊임없이 불안감과 무력감을 조성하는 함정에 빠뜨리고 만다. 자기계발과 힐링은 보완적 관계이다. 인간이 자기계발에 매진하다 보면 힐링을 필요로 한다. 힐링 인문학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문학은 자기 자신을 지각하고 발전시키는 ‘성찰적 삶의 기술’을 유도해야 한다. 개인의 삶의 행복이나 자기 자신의 의미체험이 매우 중요하며,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적 관계맺음이 ‘자기강화’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자기계발서, 신자유주의, 인적자원개발, 힐링 인문학, 자기강화교육

Abstract Neo-liberalism after IMF bailout made the Korean book market flushing with rose due to the alleged self-development books. Vision of self-development books under neoliberal social system is inevitably reduced to a means of capital pursuing commercialization in line with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privat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Characteristics of self-development books, which attributes personal fail to personal responsibility and lack of essential element compared to others in a competitive society, trap individuals forced to choose into anxiety and helplessness. Self-development and healing i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Human beings needs healing -healing humanities- in the process of self-development. Therefore, humanities should trigger developing and perceiving his own ‘reflexive life skills’. Individual’s sense of happiness in life and his own experience is very important, and the conscious relationship about their own feelings could elicit ‘self-reinforcement’.

Key Words : self-development books, neoliberalism,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healing humanities, self-reinforcement education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Received 13 September 2013, Revised 17 October 2013

Accepted 20 Nov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Kwan-Su An(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Email: ksan@wonkwang.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한가?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다. 외부인의 눈에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 선진국의 원조로 겨우 끼니를 잇고,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보잘 것 없는 나라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20여 년 만에 한국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났다. 세계인들은 그것을 한강의 기적이라 불렀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 정도의 경제대국이다. 이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 경제력을 앞잡아 볼 수 없는 위치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처참한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아보겠다는 한국인의 강한 집념의 결과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구미선진국 사람들은 한국에 민주주의가 정착할 가능성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할 것을 기대하느니 차라리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희망적이라고 비아냥대기까지 했다. 한국인 자신들도 민주화에 회의적이었다. 길거리나 대학 캠퍼스에서 반독재투쟁을 벌이면서도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를 위해 투쟁하는 지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하지만 한국인은 기어이 민주화를 이루어내고야 말았다. 1987년 6월의 저 위대한 성취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이자 기념비이다. 한국의 민주화에 회의적이었던 서양 사람들은 그것 또한 기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후 한국이 불완전하나마 민주화된 국가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1]

서양 세계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데 200-300년은 족히 걸렸다. 그 점에 비추어 한국인은 지난 40-50여 년 동안에 스스로 이룬 성과에 대해 한없이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것이다. 현재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 선두의 대열에 서있다.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에서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학과 예술분야에서 거둔 업적 또한 탁월하다. 세계적인 리더들을 다수 배출하기도 했다. 스포츠 분야는 어떨까?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인 스스로 세계적인 수준이 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피겨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수영, 리듬체조, 펜싱 등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여자프로골프계는 한국선수들이 없으면 흥행이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한국인은 남다른 재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압축성장과 빠른 성취에는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한국은 지금 그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사회는 피상망측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다. 각종 통계수치는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암담한 실상을 잘 보여주는 것 몇 가지만 살펴보자.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정도를 나타내는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다. 지면상에 오르내리는 통계에 의하면, 2008년 한국은 행복지수 순위가 102위로 조사 대상 국가들 중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경제력이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부탄이나 코스타리카, 뉴질랜드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의 자살률은 7-8년째 세계 1위다. 하루 평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노인자살률, 청소년자살률 등 전반적으로 높다. 빈부격차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노인 빈곤율 또한 가장 높은 편이다. 청년 실업률도 최고수준이다. 이혼율, 알코올 소비율, 화장품 소비율도 세계 최고로 나타나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으나 대출금이 집값을 상회하는 하우스푸어들이 즐비하며, 자녀들 교육에 투자하느라 가난해진 이른바 에듀푸어들 또한 넘쳐나고 있다. 반면 수치가 높아야 할 출산율은 최저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이것이 적나라한 한국인의 삶의 모습이다. 겉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속은 허허로운 게 한국인의 삶의 실상이다. 한국인은 정신적으로 빈곤하며, 마음앓이가 심한 것이다.

한국인은 물질적인 풍요를 얻은 대신 그보다 중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었다. 지금 한국인들에게는 도대체 품격이란 것을 찾아 볼 수가 없다. 품격은커녕 천박스럽고 동물적이다. 이득이 될 만한 곳이면 단 음식에 파리 꼬이듯 몰려들었다가, 볼 장 다 보았다 싶으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린다. 갈수록 물질 만능 풍조가 심해져 가고 있다. 입이 짝 벌어질 만큼 값비싼 명품이 세계에서 유례 없이 불티나듯 팔리고 있는 곳이 한국이다. 한국에는 베버(Max Weber)가 지적한바 “정신 없는 전문인, 가슴 없는 향락인”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2]

한국인들은 지금 정신적·정서적으로 매우 빈곤하다. 여러 통계 수치가 말해주듯 한국인의 삶의 질은 낮은 수준이고, 내면은 공허하다. 이런 마당에 국민소득 3만 달러니 4만 달러니, 세계 7대 경제대국이니 8대 경제대국이니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앞뒤 살피지 않고 달리기만 해

서는 안 된다. 인간성 상실과 마음의 상처로 인한 중병을 치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 신자유주의 뒷

2.1 신자유주의의 지향점

18세기 후반 아담 스미스(Adam Smith)로부터 시작되는 자유주의 경제의 역사는 길고도 우여곡절이 많다. 스미스가 근대 자유주의 경제이론의 시조이기는 하지만,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유주의 경제론이론가, 무조건적인 경쟁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아도 어떤 섭리 같은 것,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용해 인간적인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사회진화론자들은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만의 통용을 역설하는 자유주의 경제론을 주장했다. 그들에게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자 윤리였다. 그것이 서구 열강을 야수적인 제국주의의 길로 이끈 요인 중의 하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자유주의 경제체제는 20세기 초반 유럽에서의 공장법이나 노동법, 혹은 사회보장법과 미국에서의 뉴딜정책 등으로 어느 정도 제약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특히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주장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경제이론이 현실에 상당히 반영되었다. 하지만 1980년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와 영국 대처 수상의 소위 대처리즘에 의해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다시 부활했다. 가진 자들에게는 강력한 무기지만, 없는 자들에게는 수탈의 도구나 다름없는 신자유주의가 기세등등하게 재등장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한 마디로 무한경쟁을 통한 약육강식의 논리가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통용되는 세상이다. 20세기말부터 세계는 IT혁명에 의해 하나의 촌락이 되어 버렸다. 국경이란 개념은 희미해지거나 아예 없어져버렸다. 경제적 재화, 특히 금융자본은 빠른 속도로 사냥감이 있는 곳으로 몰려다니며 먹이를 해치우고는 유흥이 낭자한 사냥터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빠져나가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특히 금융자본주의 본질이다. 신자유주의란 탈을 쓰고서 말이다.

1980년대까지 한국의 경제는 소위 개발독재에 의해

발전했다. 기업들은 산업화를 지상목표로 삼은 독재정권의 비호 하에 크게 성장했으며, 그것이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독재정권이 명을 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은 한국전쟁에 버금갈 만큼 치명적이었다고 평가되는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이했다. 그 충격은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다. 충격에 빠진 정치가나 관료, 그리고 학자들은 구미 열강의 주류 경제체제, 즉 신자유주의 체제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아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자유주의가 한국의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그 체도를 도입하는 데 열을 올렸다. 기업경쟁력 제고, 정리해고, 아웃 소싱, 비정규 임시직, 선진금융기법, 무한경쟁 등이 모두가 신자유주의를 떠받치는 기둥들이다.

기업들은 국가가 보장해준 신자유주의라는 든든한 후원자의 도움으로 승승장구했다. 무한경쟁의 정글 속에서 가진 자들과 경쟁력 있는 자들은 더욱 부유해졌다. 반면 가난한 자들과 경쟁력이 떨어진 자들은 더욱 곤궁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전자는 승자로서 “가슴이 없는 향락인”으로 존재하고, 후자는 패자로서 실의에 빠져 죽음의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통계수치들은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승자나 패자나 사실상 모두 패자인 현재의 한국사회, 이는 승자 독식주의 혹은 반인문학적 신자유주의가 낳은 괴물이다.

교육 역시 인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처럼 거세게 몰아친 신자유주의 체제의 광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공교육의 핵심은 교육적 평등의 실현을 이상으로 해서 국가가 국민의 교육을 보장하고 교육체제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그러나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화 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필연적으로 공교육의 이상을 훼손하고 만다. 최소한의 평등권인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마저도 차별화 된 자본의 소유 여부에 따라 차별화 됨으로써 빈곤층 자녀의 교육권이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강화되어야 할 공교육의 ‘공공적 원리’를 거꾸로 약화시키고 ‘시장의 원리’로 교육정책의 중심축을 삼고 있다. ‘교육의 상품화, 수요자 중심교육, 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이 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구호들이다. 시장화는 공교육의 민주화와 평등화, 교육의 사회적 보장과 같은 교육의 운영권을 시장에 넘겨주고 시

장의 선택에 교육의 방향을 맡기고 있다. 교육의 시장화가 요즘 우리 교육이 겪고 있는 위기의 진앙지[3]라는 데에 교육전문가들은 거의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2.2 신자유주의와 자기계발서의 함정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가면서 한국의 도서시장은 소위 자기계발서로 화끈 달아올랐다. 수십만 부 팔린 책들이 부지기수며, 초대형 밀리언셀러도 열 권 이상 나왔다. 평소에 책이라고는 손에 대지도 않던 사람들도 잘 나간다는 자기계발서 읽기에는 몰두하곤 했다. 가히 자기계발서 전성시대라 할 만 했다. 책 잘 안 읽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이지만, 자기계발서류만은 예외로 쳐도 좋을 것이다.

미국에서 자기계발서가 갖는 한계점, 혹은 부정적인 측면 연구의 대가인 미키 맥기(Micki McGee)는 자기계발서가 널리 읽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기계발서 시장의 엄청난 성장은 미국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정체 및 고용불안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 ... 이제 더 이상 결혼을 했거나 취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언제라도 결혼할 수 있고 항상 취직이 될 수도도록 만반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배우자가 이끌리도록 자신의 용모를 가꾸고 회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리더십을 갖추는 것은 이 같은 신경제하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과제다. 안정감은 예외적인 것일 뿐이고 불안감이 일상이 되었다. 이런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 개인들은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오래 일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을 관리하며 자기계발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충고를 듣게 된다.[4]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한국이 신자유주의의 광풍에 휩쓸려가는 시점에서 미국에서처럼 그런 종류의 책이 쏟아져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고 볼 수 있다. 경쟁에 내몰린 어려운 시대에 장점 하나 갖추면 성공할 수 있다는데 그 아니 좋은가? 역지라도라든 반면에 웃음을 가득 채우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주문처럼 외쳐대면 성공할 수 있다는 데 그 아니 좋은가? 미국에서 나온 자기계발서에 의지해 성공논리를 버무려, 이른바 부흥신학을

전도해 크게 세를 키운 개신교 목사들도 상당수 있다.[5] 자기계발서는 경쟁에 내몰리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선은 몽실몽실한 흥분제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자기계발서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자유주의 체제의 약육강식의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체제에서 살아남는 것을 최대의 성공으로, 더 나아가 자량이자 미덕으로 여긴다. 한 마디로 욕망을 극대화 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라고 북돋운다. 사회구조적 모순 등은 관심 밖의 영역이다. 대다수가 실패하고 극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구조라고 해도 말이다.

둘째,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 성공적인 삶과 실패한 삶이 분명히 나뉜다. 욕망을 극대화하고 경쟁에서 승리해 세속적인 목표를 이루면 성공한 인생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는 순전히 개인의 책임이다.

셋째, 끊임없이 독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무엇인가에 대해 의심하도록 조장한다. “독자들을 불안전한 존재로, 미, 건강, 부, 취업, 애정, 혹은 특정 분야의 기술적 지식 등 어떤 근본적 요소가 결여된 존재로 정의”한다.[6]

이런 점들로 볼 때 자기계발서 저자들은 신자유주의의 나팔수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공적인 영역, 사회구조적인 측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신자유주의에 적응하든지 죽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할 뿐이다. 그들은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성공이자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성공과 실패는 거의 전적으로 자신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기업, 특히 대기업에서 볼 때 기존 질서에 대한 구성원들의 순응적인 태도는 매우 바라는 바다.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순응해 살아남기 위해서로 경쟁하고 노심초사하니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은 자기계발 열풍을 독려하고, 책을 사서 나누어 주며, 저자들을 초청해 대규모 강연을 열어준다. 경쟁력 있는 소수의 직원을 한껏 띄워주고 상을 듬뿍 안겨준다. 반면 그러지 못한 자들을 능력 없음을 이유로 가차 없이 잘라버린다. 별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요즈음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목격하는 현상이다.

자기계발서는 읽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는다. 즉

마음의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이다.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테크닉, 일종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 그나마 그에 과도하게 집착할 경우 자신의 자아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시달리는 자아”로 만들고 만다.[7] 스티븐 코비(Stephen R. Covey)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자기계발서를 저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류의 책들은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의식, 다양한 기법들, 그리고 응급처치식 대응책 등으로 가득 차”있고, “급성적인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스피린이나 주고 봉대나 감아주는 식의 임시응급책”을 쓰는 식이고, “급하지는 않지만 원천적인 문제의 해결을 방치함으로써 자주 앓아 터지고 재발하게” 한다고 말했다.[8]

한국에서는 아직 자기계발서를 비판적으로 다룬 학문적 연구가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터넷 등에서는 그러한 시각의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소개하기 어려울 만큼 언어가 너무 거칠고, 근거 없이 단정적인 주장이 대부분이다.

자기계발서가 낳는 큰 폐해의 실례로서 론다 번(Rhonda Byrne)이 쓴 『시크릿』과 그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이 땅에 요행의 유희를 가득 뿌린 폐해를 낳았다. 번은 중력의 법칙처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 ‘이끌림의 법칙’에 따라 생각만 하면 원하는 것들이 눈앞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똥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도 날씬한 몸매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몸짱이 될 수 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자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단다. 심지어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고급승용차가 집 앞 현관에 톱하니 나타난단다.[9] 수백만 독자가 이런 주장으로 일관한 『시크릿』을 읽었고, ‘이끌림의 법칙’을 실험해본 사람들 또한 부지기수다. 실험 결과 전교 1등을 했다는 고등학생, 100만원을 벌었다는 대학생, 아파트 분양에 성공했다는 중년 여성 등이 속출했다. 실제로 그랬는지, 착각이었는지, 망상이었는지는 본인들이 잘 알고도 남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대거 등장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범람이 낳은 “일종의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전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한번 믿어보고 싶은 것이다. 마음으로나마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 되어보고 싶은 것이다.”[10]

2009년경을 넘어서면서 자기계발서 열기가 한풀 꺾였다. 세계를 강타하고, 미국에 흑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개인의 의지로는 되는 게 별로 없음을 자각하게 된 것이 그 계기라 할 수 있다. ‘이끌림의 법칙’같은 요행도 통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갔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삶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가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이 거의 없음을 자각해갔다. 근심과 걱정 속에 일자리, 집, 결혼,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을 속절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당면했다. 가슴을 한껏 부풀어 오르게 했던 자기계발서류의 서적이 범람한 현상은 “사람들의 머리를 실컷 두드려 패놓고 그 다음에 진통제나 습포제를 파는 그런 ‘악덕 상술’같은 문화가 만연”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11]

산자유주의 사회체제에서 자기계발서의 환상은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개인의 경쟁력 향상과 맞물려 필연적으로 자본이 추구하는 상품화의 수단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러한 자기계발담론의 상품화 소비화 경향은 개인들의 삶의 소비나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살아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일종의 테크놀로지로서 작용하였지만, 다시 말해서 자기계발에 대한 일상의 세세한 지침들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개입하고 관여하였지만,[12] 개인이 자신을 구성할 자유, 즉 개인이 주체가 되어 구성하는 정체성[13] 형성에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주체성이 신자유주의사회에서 범람하는 자기계발서들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자본주의사회의 기업논리에 의해서, 혹은 상품화에 의해서 얼핏 ‘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14]처럼 보이지만, 이는 개인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 사회가 원하는 시민이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계발 담론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을 문제화하고, 자기계발의 테크닉을 실천한 결과로서 구성된 산물[1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업논리에 적응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자기계발서는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하는 자유의지를 형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성공의 필연성을 굳게 믿지 않은 결과라고 개인에게 전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자기계발서의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쟁사회에서의 낙오를 순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무엇인가 근본적 요소가 결여된 존재

로 인정하도록 만드는 자기계발서는 이처럼 선택을 강요당하는 개인들을 끊임없이 불안감과 무력감을 조성하는 함정에 빠뜨리고 만다. 『위험사회』의 저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선택을 강요당하는 개인의 불안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선택거리들의 범위가 더 넓어질수록,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더 커질수록, 더 많은 개인들이 생애조정과 생애통합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만 한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남자와 여자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하고, 임기응변하고, 목표를 정하고, 장애를 인식하고, 패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도해야 한다.”[16] 신자유주의 체제의 약육강식의 경쟁사회는 기업이든 정부든 간에 구성원들의 내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위험사회에서 자기 자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모든 행동이 자신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강요당하는 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자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안과 무력감에 시달린다.[17]

3. 힐링 인문학은 구세주인가?

자기계발서는 신자유주의사회의 기업논리에 적응적인 자아를 형성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하는 자유의지 형성이나 경쟁사회에서 낙오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특성상 선택을 강요당하는 개인들이 끊임없는 불안감과 무력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자신의 주체적 삶을 구성할 자유를 얻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최근 사람들은 힐링 인문학에서 그 길을 모색하고 있다.

힐링의 일반적 의미는 몸이나 마음을 치유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힐링’의 개념은 사회적 압박감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러한 의미의 ‘힐링’과 인문학을 조합한 ‘힐링 인문학’이란 표현이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삶의 의미나 가치, 행복의 의미, 삶의 균형감 및 충족감, 자아정체감 등을 다루는 삶의 지혜나 기술에 관한 책의 출간, 특강, TV,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힐링이 붐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 유행처럼 등장한 용어인지라 그 정의마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이

다. 굳이 말하자면 인문학, 특히 철학이나 문학 그리고 다양한 대중매체 등을 통해 ‘마음의 병’을 치유하려는 신종의 학문적 경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현대인은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와 세계사회가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 즉 지역과 세계, 특수성과 보편성, 중심과 탈중심의 이중교배적 삶의 질서를 체험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질주와 파열적 존재 소실, 분열적 속도와 욕망의 편집 속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의식한다. 이러한 의식 속에서 경쟁과 불안, 공격과 분노, 질주와 도피, 경제적 욕구충족과 삶의 허무감, 히스테리와 신경증의 증가 등 다양한 병리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가운데 많은 증후들이 실은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의미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8] 삶의 정체성 상실, 불안, 위기의식, 피로, 스트레스, 우울증, 강박증, 존재의 객체화, 인관관계의 위기, 자기존재감의 혼돈 등과 같은 삶의 가치혼란과 정신적 갈등 속에서 오늘날 인문학은 성찰적 삶의 기술을 제시하고 삶의 치유제가 되고 있다. 인간은 왜 사는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행복의 본질은 무엇인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등이 인문학적 주제들이다. 이 주제들은 자기인식과 자기성찰을 통해 스트레스나 사회적 긴장감 등으로 피폐해진 삶을 보다 의미 있고 진지하게 영유하도록 하는 철학실천적인 경향과 학문영역들을 포괄하며, 이를 통틀어 ‘힐링 인문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힐링 인문학’은 IMF 경제위기 이후 몇몇 뜻있는 성직자나 인문학자들이 캐나다 철학자 쇼리스(Earl Shorris)의 노숙자 대상 인문학 강좌인 “클레멘트 코스”를 모방해 실직자나 노숙인들에게 ‘희망의 인문학’강의를 선보이면서 시작되었다. 젊은 인문학자들이 교도소를 찾아가 재소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문학을 강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9] 그 때만 해도 시대적 정서는 자기계발서들이 주창하는 식의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지배적인 시절이었다. 소수의 낙오자를 제외하고는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현실적인 성공에 대한 꿈을 꾸며 일에 매진하던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드시 희망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끈고한 이 시대, 이 땅에 ‘힐링’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 갈가리 찢어진 자아를 위

로하고 치유하고자하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다.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헤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초단기간에 밀리언셀러가 된 ‘힐링’ 서적들이다. 그 밖에 법륜 스님의 『스님의 주례사』, 정목 스님의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불필 스님의 『영원에서 영원으로』도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대열에 합류했다. IMF 경제위기 이후의 자기계발서에 대한 열풍이 이제는 ‘힐링’으로 그대로 옮겨온 듯하다. 스님들의 저서가 ‘힐링’ 열풍의 주역이라는 점이 눈에 뜨인다. 이에 대해 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한기호는 이렇게 평가한다.

스님들이 냉소에 빠져든 대중의 마음을 두드린다. 스님들은 불교 교리로 억압하려 들지 않았다. 평범한 언어로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펼쳐놓으면 대중은 삶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으로 받아들였다. 성공은 진즉에 포기했고, 한없이 움츠러든 행복마저 버리고 이제는 정말 어딘가로 훌훌 떠나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스님들은 그들 자신이 꿈꾸는 삶의 초상이었다.[20]

책을 통한 ‘힐링’ 바람은 거대한 열풍의 서장일 뿐이다. ‘힐링’이 인문학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 강원대학교에서 ‘인문 치료’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인문주간’의 연구주제를 ‘치유의 인문학’으로 정했다. ‘인문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에 세계 20여 개국 33명의 학자와 국내 학자 28명이 참여해 의견을 발표했다. 여러 대학에 인문치료학이나 철학상담치료학파가 생겨나고 있다. 모두 인간성 상실과 내면의 상처로 인한 ‘마음의 병’ 치유를 목표로 하는 ‘힐링 인문학’ 범주에 속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힐링’ 이벤트들이 전개되고 있다. 각 종교단체들이 경쟁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마음수행의 전통이 강한 불교계가 선두주자이다. 전국에 걸쳐 많은 사찰들이 템플스테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예술인들은 ‘예술치료’라는 것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자체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여는 인문학 강좌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 가히 ‘힐링’ 인문학의 전성기라 하기에 손색이 없을 듯하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피곤하고 아프다. 마음은 상처투

성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다. 그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이력서 쓰기 등에 이골이 나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하에 나라는 부강해지고, 기업은 성장해왔지만 젊은이들이 일할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이 넘쳐난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숙고해야 한다. 그들은 희망이 없기에 정말 아프다. 아픈 몸으로 킁킁한 어둠속을 헤매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위로받아야 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힐링’ 열풍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껏 부풀어 오른 근거 없는 희망을 누그러뜨리거나 통증에 잘 듣는 진통제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힐링’ 서적이거나 이벤트성 행사로 ‘마음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 한기호는 ‘힐링’ 서적의 한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고용 없는’ 성장에 질려버린 떠도는 영혼들이 현실에서의 갈급함을 스님들의 책으로 해소하려 들지만, 그러나 스님들의 책은 대부분 환경 순응의 철학을 맹목적으로 강요하던 미국발 자기계발서의 변종이나 다름없다. 트위터에서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스님의 어설픈 육아 조언이 물의를 일으키는 해프닝도 있었다. 질문에 대한 즉답이나 잠언 수준의 조언에 인간 삶의 수고스러운 면이나 깊은 성찰이 담기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보인다. 항우울증 치료제 수준의 책들이 아닌 깊은 사유를 하게 만드는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독자들이 찾게 될 날은 언제일까. 필연적인 고민에 대한 근원적 치유에 한발 더 다가서는 날 말이다.[21]

그래도 책이나 학술대회, 이벤트성 행사 등은 괜찮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닐지라도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큰 해가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 열풍에 편승해 자본주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이미 그러한 조짐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언론인 양선희는 “요즘 ‘힐링 산업’은 승승장구다. 숲과 자연을 낀 ‘힐링 여행’ 상품이 나오고, 건강식품은 ‘힐링 푸드’라는 이름으로 팔린다. 힐링 강좌, 힐링 스포츠, 힐링 댄스 등 온갖 힐링 상품들이 판치면서 19만원짜리 ‘힐링 스파’, 500만원짜리 3박4일 힐링 리조트 여행도 나왔다.

……힐링은 장삿속으로 변질되고 있다. 아니, 어쩌면 힐링은 애당초 위로와 치유를 앞세워 젊은이들에게 병들었다고 최면을 거는 상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썼다.[22]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사회는 패자에게 심각한 ‘마음의 병’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승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수험준비 및 취업준비에 시달리는 한국의 어린이나 젊은이들 모두 격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직장인들이나 베이비부머들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노력해도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다수가 패자로 전락하고 마는 계신자유주의 사회의 특성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절대 다수가 고통스런 ‘마음의 병’을 갖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인의 마음의 병은, 한기호가 지적한 대로, 스님들의 ‘힐링’ 서적 같은 것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런 것은 청량제나 안정제 역할을 할 뿐이다. 어느 불교계의 독설에 가까운 다음의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청년들이 겪는 아픔이 단지 개인적인 역량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이 사회의 본질적인 왜곡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젊으니까 견뎌내라고, 고통을 참고 최선을 다하면 그에 맞는 보상이 따른다고 조언하는 건 지나친 그리고 너무 위험한 긍정주의이고 이성을 굶아 먹는 청춘들의 아편이다.

복음주의와 자본주의의 절묘한 결합, 거기에 여기저기서 주위 모은 싸구려 인문학을 곁들이면 아주 그럴싸한 멘토가 된다. 그리고 우리시대의 ‘멘토’들은 사회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는 그저 웃거나 아니면 독설을 내 뿜으며 희망을 노래하면서 장사를 한다. ‘청춘들’이 가장 좋은 먹잇감이고 최대의 고객이다.[23]

장삿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힐링 산업으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런 것은 오히려 중독성이 강한 환각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표면적으로는 영성을 추구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영적 물질주의”(spiritual materialism)로 흐르고 말 가능성이 농후

하다.[24]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만연한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최선의 길 중의 하나는 인문학이 우리 각자가 자신을 자각하고 발전시키도록 ‘성찰적 삶의 기술’을 유도하는 것이다. 빌헬름 슈미트(W. Schmid)는 개인의 삶의 행복이나 자기 자신의 의미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적 관계맺음이 ‘자기강화(selbstmächtigkeit)’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직업적 사회적 위치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찾을 수 있는 외부와 내부의 균형이야말로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보며, 삶의 균형의 예술을 강조한다.[25]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탐진치(貪瞋痴)로 가득 찬 일상적인 마음을 바꾸어야만 한다.”[26] 욕심을 줄여야 한다. 자족할 줄 알며, 적당한 선에서 그칠 줄 알아야 한다. 화내지 않아야 한다. 일단 화를 냈으면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현명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한 마디로 지금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기 혁신을 해야만 한다. 종교에서 흔히 말하는 거듭남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거듭나기”(twice born)라고 표현했다.[27] 일상을 버린 수행자만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 누구라도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통해 해낼 수 있는 일이다.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성찰하지 않는 삶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 소크라테스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의 선현들은 무엇보다도 자기성찰을 가르쳤다. 그러나 최근 한국인들의 주된 가르침은 욕망을 극대화하고, 경쟁에서 이기라는 것이다. 자기계발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다.

또한, 인간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인문학은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문제의 치유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지각하지 않을 수 있는 부정적 힘없이 오직 무언가를 지각할 수 있는 긍정적 힘만 있다면 우리의 지각은 밀려드는 모든 자극과 충동에 무기력하게 내맡겨진 처지가 될 것이고, 거기서 어떤 ‘정신성’도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만 있고 하지 않을 힘이 없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활동과잉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

다.[28]

신자유주의의 뒷에 걸린 성과지향적 사회는 인간을 무한경쟁과 무한경쟁의 사회로 내몰아 피로사회로 만들고 만든다. 『피로사회』의 저자 한병철은 성과사회에서 주체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스스로 강제하는 자유’를 시작하게 된다고 본다. 자기계발서의 유희에 이끌려 성공적인 인간을 꿈꾸는 주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에 자기 스스로를 강제하는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자기착취는 신자유주의적 기본원리로서 타자 착취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성과를 올린다. 그러한 착취는 자유롭다는 느낌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착취하는 것이다.[29]

인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하는 학문 영역이다. 인간의 존재, 가치, 행복에 관한 학문이다. 따라서 인문학은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간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 인간의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모색한다. 그러므로 규범적, 윤리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인문학이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개인의 욕망의 허구성을 자각하게 함으로서 주체가 자본주의 시스템 재생산의 노예로 착취당하지 않도록 건전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바지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자기계발서가 권장한 바대로 개개인이 욕망을 극대화하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의 경쟁력만을 키우려 애를 쓴다면 이전투구의 전장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성직자 힐링 멘토들의 바램대로 세속인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4. 나가는 글

한국의 인문학은 위기에 빠져있음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대학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진행된 대학의 구조조정에서 인문학 분야가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인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다. 지방대학의 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인문학의 중심축인 이른바 문·사·철(문학·사학·철학)과 관련된 학과는 취업률이 낮거나 눈에 드러나는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과, 혹은 축소 대상 0순위에 해당되는 게 현실이다. 정부 연구개발지원

비도 인문학 분야는 다른 학문분야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인문학을 하는 인문학자들에게 있다. “인문학은 허위와 거짓으로 덧씌워져 실체가 가려진 모든 인습·제도·사회·문화·정치·이념·종교·도덕 등 삶의 외부조건들에 끊임없는 비판을 제기하는 학문이다. 이런 비판과 성찰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 안팎의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고 변혁해 나가도록 자극하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다.[30] 그런데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배타적이고 단일함에 빠져 있음은 물론 “한국의 고질적인 학문과 교육 현실을 무시한 채 외국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학문 전공자들을 ‘수입상’, 동양철학자들을 ‘고물상’이라는 조롱마저 흘러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땅의 인문학에는 우리의 학문과 현재에 대한 해석의 틀은 물론 그에 근거한 이론조차 찾아보기가 힘들다. 불임의 인문학, 현재를 사유하지 못하는 인문학”이 있을 뿐이다.[31] 외국의 새로운 이론을 아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밥값을 한다고 자부하며, 누가 더 원전을 충실히 알고 있는가로 우열을 다투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의 현실에 접목되지 못한 이론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던 말인가? 이 땅의 인문학자들은 하루 빨리 ‘수입상’과 ‘고물상’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10여 년 간격으로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하는 집단적 행동을 보여 왔다. 가장 최근의 일로 2006년에 대대적인 인문학 위기선언이 있었다. 인문학이 홀대 받는 현실은 나라에 재앙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인문학 활성화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들은 정부에 인문학 진흥기금을 마련하고 인문학 발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은 그들이 인문학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다만 인문학 학과 학자들이 누리던 우월한 위치가 후퇴한 것에 대해서만 염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문학을 돈과 연결시키는 것은 인문학의 본질을 벗어난 “비인문학적 행태”이다.[32] 인문학을 굳이 돈과 연결시킨다면 역설적이게도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것이 인문학이다. 위의 선언을 통해 제도권 인문학자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생각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음을 드러내보였다.

지금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는 청량제나 안정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가치와 철학, 즉 인문학적 소양이다. 성프란시스대학 설립을 주도한 임영인 신부는 그 대학 입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당신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바로 인문학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공부하겠다고 찾아온 일은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인문학을 공부하면 돈을 벌거나 취직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자들보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보다,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33]

한국의 인문학자들은 버릇처럼 중얼거리던 인문학의 위기를 그만 논해야한다. 싹짓돈에 눈이 어두워 버릇처럼 해오던 어리석은 것들을 그만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철학을 세워야한다. 젊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철학을 부여해 그들을 살아 숨 쉬도록 진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편한 진실들을 용기 있게 고발해야 한다. 아마추어 저술가들이나 스님들이 가벼운 글이나 달콤한 이야기로 인문학을 대신하게 해서 안 된다. 그런 일을 그들이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힐링’을 내건 이벤트성 행사나 대중서적으로는 뿌리 깊은 마음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 인문학자들은 본분을 파악하고, 각자의 노력을 기울여 이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키잡이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2010

REFERENCES

[1] Breen, Michael, trans. Kim Ki Mann, *The Koreans*. Seoul : Hong Ik Publishing Ltd. Co., pp. 39-41, 1999.

[2] Weber, Max, trans. Kim Duck Young,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Capitalism*. Seoul : Gil Publishing Company, p. 367, 2010.

[3] Hak-Han Kim, "Neo-Liberalism and the Collapse of Public Education," *Educational Review*. Vol. 1, pp. 52-62, 2000.

[4] McGee, Micki, trans. Kim Sang Hwa, *Self Help, Inc. : Makeover Culture in American Life*. Seoul : Moyosa, pp. 21-2, 2011.

[5] Jin-Ho Kim, *Citizen K, Go to Church*. Seoul : Hyeonamsa, pp. 103-6, 2012.

[6] McGee, op. cit., p. 30.

[7] McGee, *ibid.*, p. 27.

[8] Covey, Stephen R., trans. Kim Gyeong Sup and Kim Won Seok,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Seoul : Kimyoungsa, p. 22, 1994.

[9] Byrne, Rhonda, trans. Kim U Yel, *The Secret*. Seoul : Sallim Biz, 2006.

[10] Hyeon Song, *Dear My Children, Read My Letters to You*. Seoul : Jinmyung Publishing Company, p. 73, 2009.

[11] Sang-Jung Kang, trans. Song Tae Uk, *The Reasons to Live*. Seoul : Sakyejul, p. 93, 2012.

[12] Ji-Yoon No, "Self-Development Discourse and Life's Manager," *Korean Sociology Society's Sociology conference Essays*. No 6. p. 988, 2008.

[13] Eun-Kang Ko, "An Essay on Self-Development Ethic in Dangerous Society," *Mind Culture Study*. Vol. 34, No. 4, p. 116, 2011.

[14] Dong-Jin Seo, *Free Will and Self-Development's Will*. Seoul : Dolbegae, 2009.

[15] Eun-Kang Ko, op. cit., pp. 103-4.

[16] Beck, Ulrich, et al., eds. and writers Han Sang Jin and Sim Young Hee, *Dangerous World and Family's Future*. Seoul : Saemulgyoel, p. 129, 2010.

[17] Eun-Kang Ko, op. cit., p. 116.

[18] Jeong-Hyeon Kim, "Philosophy and Mind Healing," *Mind, Life and Religion*(Materials Collection of Spring Academic Conference by Won Kwang Univ. Won Buddhism Research Center), p. 72, 2010.

- [19] Byung-Kwen Ko, *Expulsion and Escape*. Seoul : Greenbee, 2009.
- [20] Ki-Ho Han, "Due to the Growth Without Employment Healing Book 's Daily Permissible Ceiling," *Hankyoreh* 21. No. 935, p. 87, Nov. 12, 2012.
- [21] Ki-Ho Han, *ibid*.
- [22] Sun-Hee Yang, "Healing, Profit-making Business," *Jungangilbo*, Sep. 21, 2012.
- [23] <http://blog.naver.com/karin07/130149455449>
- [24] Seung-Mu Yu, Min-Ju O, "Deepening Mind Suffering and Weakening Mind Training," *Finding Mind Training and Mind Healing in Classics*(the 10th Mind Humanity Academic Conference Materials Collection by Won Kwang Univ. Mind Humanity Research Institute). pp. 1-20, 2012.
- [25] Jeong-Hyeon Kim, *op. cit.*, p. 85.
- [26] Seung-Mu Yu, Min-Ju O, *op. cit.*, p. 15.
- [27] Sang-Jung Kang, *op. cit.*, pp. 120-2.
- [28] Byung-Cheol Han, trans. Kim Tae Hwan, *Mudigkeitsgesellschaft*. Seoul : Moonji Publishing Co., Ltd., p. 53, 2012.
- [29] Byung-Cheol Han, *ibid.*, p. 6.
- [30] Gyeong-Jang Park, "Street People and Humanities," *Humanities in Street*. Seoul : Samin, p. 107, 2012.
- [31] Seung-Hwan Sin, *Now and Here 's Humanities*. Seoul : Humanitas, pp. 26-9, 2010.
- [32] Seung-Hwan Sin, *op. cit.*, pp. 23-5.
- [33] Young-In Im, "The Birth of Korean Style Clement Course," *Humanities in Street*. Seoul : Samin, p. 83, 2012.

안 관 수(An, Kwan Su)



- 1986년 8월 : 독일 Dortmund대학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학사)
- 1990년 2월 : 독일 Dortmund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석사)
- 1994년 2월 : 독일 Dortmund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 박사)
- 현재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인문사회융합콘텐츠센터장

· 관심분야 : 평생교육, 교육사회학, 힐링과 교육, 융합연구
· E-Mail : ksan@wonkwang.ac.kr

송 현(Song, Hyeon)



- 1982년 2월 : 전북대학교 사학과 졸업(문학사)
- 1986년 2월 :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 석사)
- 1995년 8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문학 박사)
- 2013년 현재 : 원광대학교 시간강사

· 관심분야 : 힐링 인문학, 철학 치료
· E-Mail : biggerman@daum.net